십자가원수 3종세트

(행19:21~41)

23. ○그 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원수 3종 세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십자가원수의 3종 세트’

에베소에서의 사도바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아주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지금 쓰여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쓰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8절에서 사도바울의 2차 여행이 마감되고, 3차 여행이 굉장히 시부적하게 시작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에서 본격적으로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그려지기 전에, 그 가운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묘사를 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에베소지역에서 아볼로에게 배워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믿던 사람 열 둘에게 사도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가르치게 되고, 안수를 하면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 에베소의 성령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다 이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아볼로와 아볼로에게서 배워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요한세례의 의미에 비추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가르침이 이 속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요한세례의 의미를 마음이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접하게 될 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십자가 원수로 행할 때 3종의 행태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봤다는 얘깁니다.
요한세례의 의미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들이댈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원수가 되어서 세 가지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국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면 이렇게 부끄러움 가운데 처하게 될 텐데, 한 마디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비돼서 십자가를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겉에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늘로부터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내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게 되고 기쁠 일을 기대하면서 온통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요구한 게 바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돌이킴.
땅으로부터 내 빈 마음을 채워서 기뻐하려고 하는 그 행태로부터 돌이키라는 얘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올 텐데, 너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만 내 마음을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결심이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요한세례가 예수님 앞서 나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세례의 의미가 마음에 적용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는 행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굳은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8장 9절에 보면, 굳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마음이 인간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 인간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에 마음이 유착되어 있는 상태가 너무 굳건해서 틈바구니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그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돈이 좋아요.
돈이 너무 좋은데, 십자가를 전하면서 자꾸 돈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돈으로 만족하려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로 만족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게서 돈이라는 것을 빼앗아가고, 돈을 벌 가능성을 제거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돈을 못 놓겠어요.

이게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가족이 너무 좋습니다, 나라사랑에 완전히 빠져있습니다, 취미 골프에 빠져있습니다, 명품 가방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꾸 내가 중독되어 있을 만큼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으라고 얘기해요, 골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얘깁니다.
명품 백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걸 다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발합니다.
이게 십자가 원수의 첫 번째 행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만든 블로그에 들어갔다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십자가는 빨리 지나가야 된다, 십자가를 빨리 지나보내고 죄 사함 받은 상태로 즐겁게 살아라!' 죄 사함 받은 자로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원대로 살아라, 그런 글을.

두 번째 행태는 무엇입니까?
'히틀러의 유전자'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경을 읽다보면 십자가를 제외해 놓고 보면 다 좋아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 죽은 뒤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도외시한 채, 십자가를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은 채, 시장에서 십자가 없이, 사업장에서 십자가 없이, 가정에서 십자가 없이 살면서 예수 이름을 이용합니다.
왜냐? 좋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실용적 믿음, 십자가를 도외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늘의 능력에 주목하여서 그것을 내 삶에 이용하려고 하는 실용적 믿음,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행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태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도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이 굉장한 역사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데, 팔레스타인의 바알과 아세라 신과 똑같이 풍요와 다산의 기능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은 젖가슴이 열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 그 모습만 보아도 뭔가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아데미 여신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드릴 때면 내 사업이 열두 배로 커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젖가슴이라는 게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생명을 부여하므로 자라게 하는 것인데, 열두 명의 아이, 아니 24명, 36명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무려 길이가 120 미터에 폭이 60 미터로 대형 신전이에요.
이 신전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들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에 제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영업으로 북적댔던 거예요.
숙박사업이 있어야 되고, 식사할 곳도 있어야 하고, 제사드릴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도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었던 것이 은장색들이에요.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집에다 가져다 두고 그 앞에 절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120미터, 60미터의 신전을 축소시켜서 은으로 만든 은감실을 은장색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폭발적으로 팔려나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머니까 못 올 경우에 다들 집에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째 접어들면서 바울의 복음사역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눈에 띠게 은장색들의 수입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은장색 조합의 조합장쯤으로 추측되는 데미드리오라는 사람이 선동해서 바울의 복음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결국 끝까지 읽어보면 이 소동이 무산돼버리고 맙니다만, 누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원수의 마지막 행태인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복음에 대해서 우상숭배 하는 자들이 반기를 들게 되는데, 이것이 실상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원수의 행태 첫 번째, 인간세상이 좋다고 하는 가치에 중독된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라고 하는 요청을 뿌리치는 마음가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 원수의 행태, 실용적 믿음, 십자가만 도외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이름에 함께 묶여있는 능력과 지혜와 위로와 약속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마음에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반드시 우

상시하게 돼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부를 뿐이지 실제로는 젖가슴 열두 개 달린 아데미 여신 앞에서 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오래 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업을 벌이고 돼지머리를 갖다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상에다 절을 하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때 내가 어떤 소원을 말하더라도 불상과 아데미 여신상과 돼지머리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 한 마디 하지 못하는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며 우상을 섬기느냐? 참으로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럴까요? 이게 어리석은 걸까요?
더 어리석은 게 뭔지 아십니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코멘트를 무시하고 들을 생각을 않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아예 말할 수 없는 우상 앞에서 그들의 말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소원 내 계획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말하실 수 있고 의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만 얘기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라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매력은 내가 갖고 있는 소원과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을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요, 이게 큰 매력이라는 겁니다.
젖가슴이 열두 개 달린 아데미 여신상을 바라보면서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하고, 우리 자식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게 다 열두 배로 잘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데미 여신상은 노코멘트입니다.
노코멘트라는 것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그 아데미 여신이 나를 지원하는 것처럼 내가 착각을 하게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소원을 말하더라도.
심지어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동안에 안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아데미 여신은 지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갖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그대로 다 아뢰게 됩니다.
어떤 소원을 아뢰어도 하나님은 노코멘트 하시는 분으로 취급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청하라고 하신 그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내가 돈을 10억을 갖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예수님께 강청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아데미 여신이나 불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태도라는 얘깁니다.
이거 기가 막힌 태도에요.

보세요!
내가 지금 돈 10억을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만큼의 간절함으로 내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10억을 갖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면 안 생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원하지 않아도 어떨 때는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간절함으로 원했다면, 그것이 내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멋진 명품백을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께서도 그 명품백이 내게 있기를 원하셨다면 그 백이 내게 지금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무슨 수로 없겠어요?
그런데 내게 없어요, 내게 없다는 것, 지금 내게 없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내게 없는 겁니다.
내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없는데,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청합니다, 강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을 아데미 여신으로 전락시키라는 얘기에요, 이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면 강청하는 기도는 어떨 때 드리는 겁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청기도는,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만족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왜 강청해야 되나? 하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한 마디 하면 곧바로 만족하게 해주시면 되지, 왜 강청하게까지 기다리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고 단추 누르듯이 꽉 누르면 당장에 만족하게 되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강청하라는 얘기는, 마치 애인이 미국에 가서 보고 싶어 죽겠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강청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얘깁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청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하늘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배부를 때까지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 소원을 강청하잖아요?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내 소원을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하나님을 불상으로 아데미 우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 원수로 행하는 3종 세트 중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세상 소원에 대해서 고집하고 있고, 그 소원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강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시하면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청기도는 오직 하늘을 향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세례의 의미, 내가 내 마음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는 세상에서 얻으려 하지 않고 하늘로 내 마음을 만족시키겠다는 결심이 있고서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온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을 향해 마음이 열려있는 채로 아직도 그 주입구를 하늘로 향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 십자가에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세례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위의 것으로만 내 마음이 만족하게 되리라는 결심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